14. 시대와 삶의 노래

春望

두보를 '시성(詩聖)'이라고 부른다. 이는 시인에 대한 찬사(讚辭) 중의 찬사일 것이다. 시대에 대한 아픔을 진지한 삶의 내면으로 토로했던 두보의 대표작을 통해 한시의 전범(典範)을 만나보자.

春望 _두보

國破山河在하니　　城春草木深이라.
感時花濺淚요　　恨別鳥驚心이라.
烽火連三月하니　　家書抵萬金이라.
白頭搔更短하여　　渾欲不勝簪이라.

"두공부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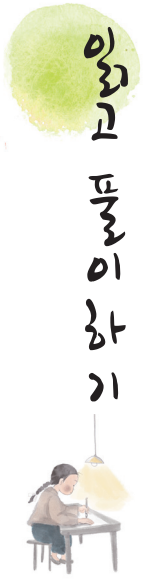
새로 배울 한자

*濺 천 흩뿌리다　*烽 봉 봉화　抵 저 거스르다　*搔 소 긁다　*渾 혼 흐리다, 모두, 다
*簪 잠 비녀

- 율시의 특징을 이해하고 대우법을 통해 운율미를 느낄 수 있다.
-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두보(杜甫, 712~770) 중국 당(唐)나라 시인. 자(字)는 자미(子美). '시성(詩聖)'이라고 불림.



*春望

*시의 형식: 오언 율시
운자(韻字): 深, 心, 金, 簪

國破 / 山河在
- 國破: 파괴되다, 깨지다
- 山河在: 그대로 있다

城春 / 草木深
- 城春: 계절적 배경 / 공간적 배경
- 草木深: 깊도다(우거져 있다, 무성하다)

感時 / 花濺淚
- 感時: 시절을 느끼다
- 花濺淚: 눈물을 흩뿌리게 하다

恨別 / 鳥驚心
- 恨別: 이별을 한탄하다(한스러워하다)

烽火 / 連三月
- 烽火: 전쟁(→ 안사의 난)
- 連三月: 이어지다

家書 / 抵萬金
- 家書: 집의 편지
- 抵萬金: 해당하다

白頭 / 搔更短
- 更: 더욱, 또

渾欲 / 不勝簪
- 渾欲: 다, 다 모아도

*更: ① **갱** 다시 更生(갱생)
② **경** 고치다 更張(경장)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2)- 律詩

- 제1구·제2구 – 수련(首聯) 시상을 불러일으킨다.
- 제3구·제4구 – 함련(頷聯)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킨다. — 선경
- 제5구·제6구 – 경련(頸聯)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한다.
- 제7구·제8구 – 미련(尾聯)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한다. — 후정

대우법- 對偶法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율시는 함련(頷聯)과 경련(頸聯)이 대우를 이룸.

- 感時 花 濺淚 ⇕ 恨別 鳥 驚心
- 烽火 連 三月 ⇕ 家書 抵 萬金

〈春望〉을 다음 [조건]에 맞추어 산문으로 각색하여 써 보자.

생각 넓히기

[조건] 1. 산문의 종류는 수필, 편지, 소설, 기사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2. 시의 정서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인문학 더하기

다산이 두보의 시를 격찬한 이유

다산 정약용은 그를 아끼던 정조 대왕이 승하하자 채 1년도 못 된 1801년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이때 다산의 나이는 40세였고, 그에게는 10대 후반의 두 아들이 있었다. 다산은 이 두 아들에게 선비로서의 올바른 처세와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많은 편지를 썼다. 자신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아들들의 교육을 편지로나마 대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던 셈이다. 이 중에서 시 창작과 시를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큰 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탁월한 현실주의 문예론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 다산은 시 창작의 전범(典範)으로서 두보를 제일로 꼽는다. 그 내용을 통해 두보 시를 이해하는 관점을 넓혀 보고 시를 보는 안목도 키워 보도록 하자.

"오늘날 시율(詩律)은 마땅히 두보로써 공자를 삼아야 한다. 그의 시가 여럿 중에서 으뜸이 되는 까닭은 『시경』 3백 편에 담겨 있는 뜻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략]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요, 시대를 슬퍼하고 세속을 개탄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며, 찬미와 풍자와 권선(勸善)과 징악(懲惡)이 있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뜻이 바르게 확립되지 않고, 배움이 순수하지 못하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듣지 못하여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민중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자는 시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니, 너는 힘쓰도록 하라. [중략] 역사적 사실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음풍영월이나 하고 바둑 이야기에 술타령이나 하면서 압운 따위에만 구애되는(시의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은 서너 집 모여 사는 촌구석의 촌 선생의 시일 뿐이다." _**'기연아(寄淵兒)'**

어휘력 키우기



1 '火(灬)'가 들어간 한자

災 재 재앙 _ 災殃 재앙　　炭 탄 숯 _ 軟炭 연탄　　然 연 그러하다 _ 漠然 막연
煩 번 번거롭다 _ 煩雜 번잡　　熟 숙 익다 _ 熟慮 숙려　　燒 소 불사르다 _ 燒却 소각
爆 폭 터지다 _ 爆彈 폭탄　　燭 촉 촛불 _ 華燭 화촉　　燥 조 마르다 _ 乾燥 건조

2 '手(扌)'가 들어간 한자(Ⅲ)

抵 저 거스르다 _ 抵抗 저항　　投 투 던지다 _ 投獄 투옥　　托 탁 맡기다 _ 依托 의탁
押 압 누르다 _ 押留 압류　　拓 척 개척하다 _ 開拓 개척　　拒 거 막다 _ 拒否 거부
據 거 의거하다 _ 證據 증거　　擇 택 가리다 _ 選擇 선택　　揮 휘 휘두르다 _ 指揮 지휘

3 모양이 비슷한 한자

深 심 깊다 _ 深層 심층
探 탐 찾다 _ 探索 탐색

烽 봉 봉화 _ 烽火 봉화
蜂 봉 벌 _ 蜂起 봉기

4 학습 용어_문학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단어를 찾아보고, 풀이와 의미를 알아보자.

文學 批評

隱喩　　換喩　　蓋然性
虛構　　首尾雙關　　逆說

새로 배울 한자

災 **재** 재앙　　軟 **연** 연하다　　漠 **막** 아득하다　　雜 **잡** 섞이다　　熟 **숙** 익다
慮 **려** 생각하다　　燒 **소** 불사르다　　爆 **폭** 터지다　　彈 **탄** 탄알　　燭 **촉** 촛불
燥 **조** 마르다　　獄 **옥** 감옥　　托 **탁** 맡기다　　押 **압** 누르다　　拓 **척** 개척하다

확인하기



[1~3]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언 율시의 한시이다.
② 운자는 '深', '心', '金', '簪'이다.
③ 대우법을 통한 절묘한 표현이 두드러진다.
④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지나간 시절에 대한 찬미와 감탄이 정서의 축을 이루며 핵심 주제를 이끈다.

2. ㉠~㉤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草木深 : 풀과 나무만 우거졌네.
② ㉡ 花濺淚 : 꽃이 눈물을 흩뿌리게 하고
③ ㉢ 抵萬金 : 만금이 아깝도다.
④ ㉣ 搔更短 : 긁으니 다시 짧아져
⑤ ㉤ 渾 : 다, 모두

3. 이 시의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시어는?

① 城春　② 驚心　③ 烽火　④ 家書　⑤ 白頭

拒 **거** 막다
批 **비** 치다, 품평하다
戱 **희** 놀다
據 **거** 의거하다
評 **평** 품평하다
雙 **쌍** 쌍
擇 **택** 가리다
*喩 **유** 깨닫다
揮 **휘** 휘두르다
蓋 **개** 덮다, 대개
蜂 **봉** 벌
構 **구** 얽다